

노건평씨, 검찰서 무슨 조사 받을까

1 세종증권 매각 개입 했나
2 청탁 대가 금품수수 했나
3 미공개 정보 유출 했나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일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상대로 한 수사는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당시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관여했는지 핵심이다.

탁해서 당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연락할 테니 들어봐라'고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것이려면 죄를 묻기 어렵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을 직접 수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도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건평 씨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노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씨 형제가 흥 사장으로부터 '성공보수'로 받은 30여억원 중 7억~8억원이 경남 김해에 성인오락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건평 씨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씨 형제가 김해 외에도 부산에도 오락실을 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어 김해와 부산 오락실의 이익금 일부를 나눠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기 수개월 전에 주식을 산 뒤 매각 발표 때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178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노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불법 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모임에서 여야 간사들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28만여명의 직업을 분류한 명단이 담긴 노트북 컴퓨터 공개 여부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

“위기 의식이 없다”

한나라 중진들 당·정·청에 쓴소리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 처리 앞장”

한나라당 3선 의원들은 1일 경제위기 해법 및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전략 등과 관련, 정부와 청와대, 당 지도부를 가리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권영세 김성조 서병수 이병석 장광근 정병국 등 한나라당 3선 의원 17명은 이날 여의도 렉스틴 호텔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회동에선 “172석 여당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강행처리는 안된다”, “친이, 친박으로 나누어서는 안된다”, “위기라면서 위기 의식이 없다”, “원내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신랄한 자아비판이 우선이다” 등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시됐다.

송광호 의원은 예산안 및 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차선책으로라도 이번 국회에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고, 이인기 의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나라당이 172석을 갖고 있는데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강력히 국정을 주도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강한 여당’을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 역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기본 원칙이고, 야당과 타협이 여의치 않으면 172석의 국민적 뜻을 거슬러서는 안된다”면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 관련부처가 모여 ‘워룸(War Room)’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워룸’이란 현재 위기를 전시에 상응하는 국면으로 규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종합상황실’을 의미한다.

“무조건 반대 말라”

민주 원로들 丁대표에 쓴소리

민노당과의 공조에도 의구심

민주당 ‘원로 의원’들이 1일 정세균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행보에 쓴소리를 했다. 당내 60세 이상 의원이 참여하는 ‘민주시니어’ 모임 소속의원 13명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의 오찬 모임에 정세균 대표를 초청했다.

당 지지를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영장집행 거부 등으로 여론의 비난이 따가운 상황에서 당의 진로를 조언하기 위해서였다.

원로들은 당의 정체성과 남북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정 대표의 대처에 대해 작성한 듯 고언을 쏟아냈다.

대북정책과 관련, 최인기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조기

로 한 데 대해 “민노당과의 공조에 의구심이 있다”며 “우리가 권익을 대변하는 계층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상천 의원은 “현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하고 있다”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 “정부가 말로만 대화한다고 하고 실제 진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약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DJ가 의도적 대북도발이라고 한 것”이라는 점을 알릴 것을 주문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홍재형 의원은 “결사반대만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반대할 것은 원칙을 지켜서 하라”고 조언했고, 박상천 의원은 지지를 정체 요인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데다 스타정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총체적 위기...전면 국정 쇄신해야”

민주 정세균 대표 기자회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정현안과 관련, “한 마디로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이라

며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의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



이 협력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년도 성장률이 2%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안은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으며 중소기업의 도산, 실업을 증가, 빈곤층 양산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수정 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로 늘어날 것”이라며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다 정부는 부자지갑만 채워주려 하고 있다”고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의 재수정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가가치세 30%인하 수용 ▲부자감세법안 철회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 ‘쌀 직불금 명단’ 제출

28만명 직업별로 분류...공개 시기·대상엔 與野 ‘이견’

공직자 조사 내일 마무리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제조사가 오는 3일 마무리된다.

또 감사원이 1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쌀 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가 포함된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 쌀 직불금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일까지 직불금 자진신고 대상자들에 대한 증빙 자료 확인·현장조사,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종합 보고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시·도에서는 10여명 안팎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시·도가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를 마감한 결과 광주시에서는 분청과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 소속 546명이 10억6천600여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전남도에서는 분청과 산하 공공기관, 22개 시·군에서 4천226명이 125억6천

600만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1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직업 및 소득별로 분류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여명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 가운데 부당수령 추정자 28만여명에 대한 직업·소득별 분류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쌀 직불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28만여명 가운데 직업이 확인된 사람은 17만여명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4만 6천여명이 포함돼 있어 명단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특히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ovita hair care products. It features a woman with long dark hair and a white hairbrush. Text includes 'novita',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측의 비대전문기업!', and '비데프라자'.

Advertisement for IONIA water purifiers. It features a water purifier unit and a water tap. Text includes '이오니아 1석 2조 테스트!', '합합리 하온수기 위생증상 개선효과 증가기반', and '이온수기 구매시 로봇청소기 1+1 증정행사를 실시합니다.'.